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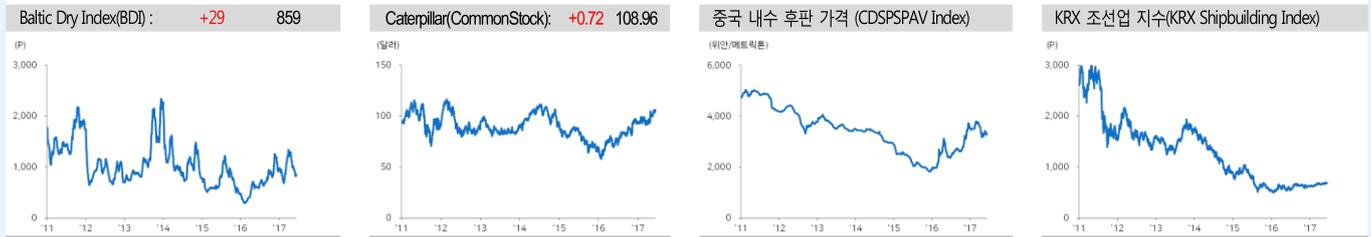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293.1	20.4	164,000	-1.2	-7.3	NA	18.5	31.9	71.4	0.8	0.8	2.4	1.1
현대로보틱스	4,671.7	18.0	388,000	-2.1	-5.8	NA	NA	7.5	8.3	0.9	0.8	11.6	9.5
현대일렉트릭	1,100.0	8.2	296,500	-1.7	-8.6	NA	NA	14.2	14.6	1.3	1.2	9.1	8.1
현대건설기계	1,326.1	10.4	370,000	-2.9	4.7	NA	NA	14.7	12.7	1.6	1.4	11.1	11.4
삼성중공업	4,563.0	20.0	11,700	0.4	-4.9	11.4	26.5	59.4	126.6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3.8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010.0	13.6	100,500	0.5	-5.6	17.3	49.6	126.7	153.7	0.9	0.9	0.7	0.6
한진중공업	450.7	4.8	4,250	0.0	-8.5	22.7	26.3	-13.2	9.6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470.6	28.4	59,700	1.4	-4.0	0.2	4.0	9.0	8.0	1.5	1.3	18.7	17.5
두산발켄	3,543.8	24.2	35,350	-1.5	-2.1	-5.4	-1.4	15.5	14.2	1.0	0.9	6.6	6.7
현대로템	1,687.3	29.1	19,850	-1.0	-10.8	-8.5	9.4	37.6	25.4	1.2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39.7	45.9	24,950	-0.4	3.3	16.3	18.2	13.1	11.5	1.1	1.0	8.5	9.0
성광켄드	296.0	13.6	10,350	-1.9	-0.5	-4.6	16.8	33.5	19.3	0.6	0.6	1.9	3.2
태광	264.7	17.3	9,990	-2.5	10.8	6.2	20.5	37.4	20.6	0.6	0.6	1.6	2.9
두산중공업	2,267.6	11.9	21,300	0.9	-9.0	-11.1	-21.7	14.7	9.7	0.7	0.7	4.8	7.0
두산인프라코어	1,753.0	15.5	8,450	1.0	2.2	-14.5	-4.2	10.2	8.4	0.8	0.8	8.3	9.6
두산엔진	291.2	5.2	4,190	0.8	-3.2	25.6	27.5	20.2	22.2	0.5	0.5	2.7	2.3
한국항공우주산업	5,887.5	25.0	60,400	0.5	4.1	6.2	-9.9	24.1	20.2	3.7	3.3	16.3	17.2
한화테크윈	2,246.0	24.7	42,700	-0.9	-7.5	-10.5	-1.7	19.0	14.9	0.9	0.9	5.0	6.2
LIG넥스원	1,557.6	19.7	70,800	0.3	-3.1	-12.6	-12.0	18.5	14.0	2.2	2.0	13.4	15.0
태웅	491.2	4.0	24,550	-2.8	-7.7	-2.0	9.4	NA	NA	NA	NA	NA	NA
동성하이텍	167.8	2.9	6,220	-0.5	5.2	-10.4	8.2	-28.9	12.4	1.5	1.4	-5.1	12.0
한국카본	277.0	17.1	6,300	-2.9	-2.5	-5.7	4.1	24.7	23.4	0.9	0.8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osco sloop continues top 10 squeeze in boxship market

Cosco의 OOIL 인수로 상위 10개 컨테이너 선사의 점유율은 8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상위 20개 컨테이너 선사의 점유율이 80%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간 업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여전히 과잉 공급 상황으로 운임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음. (Tradewinds)

Iran readies push on gas

이란이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 이란은 2021년까지 생산량을 1일 3.65억 cubic meters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란의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의 천연가스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이란은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함. (Upstream)

Oil demand to grow: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원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전망을 제시함. 이는 전기차의 증가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임. 전기차의 판매대수가 여전히 낮고 원유의 수요 증가는 화학 산업 등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함. (Upstream)

'유조선단 교체' 이란 NITC, LNG추진 선박 발주추진

이란의 국영선사인 NITC가 LNG추진 Tanker 발주를 추진하고 있음. NITC의 CEO는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선대 개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NITC는 늦어도 2022년까지 LNG 추진 선박으로 선대를 교체하겠다고 언급함.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